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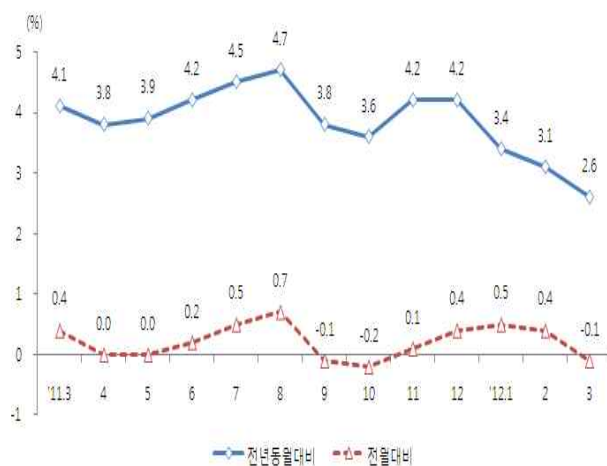
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.6%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2년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.6%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으며, 전월대비 상승률도 -0.1%를 기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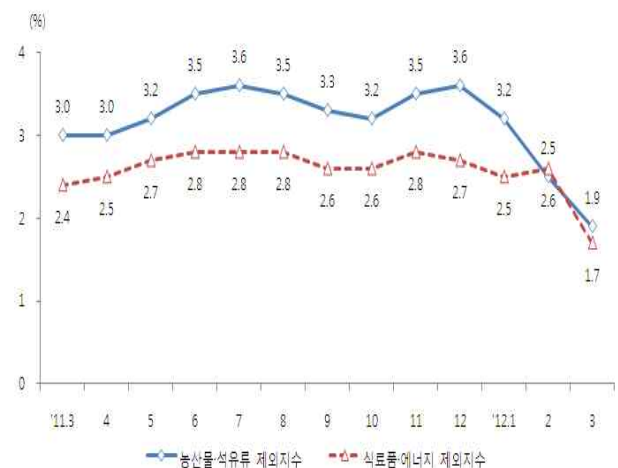
-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과 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협조에 힘입어 2010년 8월(2.7%) 이후 처음으로 2%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함.
- 과실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 충격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, 학교급식비·보육료·대학등록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외식비와 개인서비스 요금은 하락함.
-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생활물가 상승률도 2%를 기록하여 안정세를 나타냄.
- 농산물·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1.9% 상승하였고, OECD 방식인 식료품·에너지 제외 지수는 1.7% 상승함.

〈그림 1〉 소비자물가 상승률



자료: 한국은행.

〈그림 2〉 농산물·석유류 제외지수 및 식료품·에너지 제외지수



자료: 한국은행.

■ 한편, 농산물 수급조절 등을 통한 가격안정, 석유시장 등의 유통구조 개선 대책, 보육료·유치원납입금·무상급식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 정책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- 지난 해 작황부진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던 고춧가루의 경우 수입확대 및 농협할인판매 등 수급안정대책으로 가격이 2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됨.
- 알뜰주유소 확대 등을 통한 석유제품 경쟁 촉진이 가격 상승 폭을 줄이는데 기여함.
-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, 전자상거래 시장개장 등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, 농산물 직거래 확대, 물가안정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물가안정에 기여함.
- 정부의 재정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의 영향으로 보육시설 이용료, 유치원 납입금, 학교급식비가 각각 전월대비 33.9%, 11.1%, 14.5% 하락함.

〈표 1〉 정부정책을 통한 물가하락효과 추정

(단위: %, %p)

품목	가중치	하락율	물가효과
보육시설 이용료	10.0	△33.9	△0.33
유치원 납입금	6.9	△11.1	△0.07
학교급식비	9.7	△14.5	△0.08
계	—	—	△0.48

자료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.

(2012년 3월 소비자물가 2%대 진입 등, 기재부 등, 4/2)